



“배추 한 통에 만원... 김장 걱정된다”

잇단 태풍에 소매가 예년보다 92.8% 올라 저렴한 절임배추·포장김치로 눈길 돌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배춧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맛있는 고랭지배추의 소매가격은 포기당 1만 원을 호가하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김장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절임배추 또는 포장김치 구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잇단 태풍에 가을배추의 주요 산지인 전남 등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제주지역의 배추 소비자 가격도 크게 올랐다. 제주시동문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고랭지배추

는 포기당 1만원선이다. 9월 말 출하 초기에 1만3000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다소 숨을 죽이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하다. 일반배추는 대형마트나 일부 재래시장에서 포기당 6000원~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장에 필요한 무와 쪽파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무는 개당 2580원~4000원으로 몸값을 키웠다. 쪽파는 1kg에 지난주 1만2000원에서 이번 주 9000원으로 25% 내렸다. 하지만 최근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 등의 영향에 의해 전반적으로 채소 가격의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올해 마늘과 고

춥가루 값은 낮거나 안정적이다. 이처럼 가을배추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9월에 태풍이 세 차례나 들이닥치면서 배춧값이 평년보다 90% 이상 뛰어올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5680원으로 1년 전보다 60.8% 비싸다. 평년에 견줘서는 92.8%로 오르며 가게 부담은 두 배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최근 내놓은 ‘태풍 피해면적을 감안한 가을배추 지배면적 추정’ 자료에 의하면 가을배추 주산지의 피해면적은 940ha에 이른다.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4%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김장철을 앞둔 치솟은 배춧값에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거나 대형마트와 사전 계약으로 값이 오르지 않은 절임배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주부 이모(48·제주시 화북동)씨는 “배춧값이 너무 올라 얼마 전에 제주시동문시장에서 고랭지 절임배추 2포기(포기당 1만2000원)를 구매해 김치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김장철을 앞둔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가족들이 먹는 김치라서 돈이 들어도 직접 담그려고 하는데 김장시기를 평년보다 조금 늦춰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대형마트에서의 포장김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20% 가량 늘고 있다. 또 주문형 포장김치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백금타기자

“제주 노지감귤 구매하세요” 롯데백화점 창립기념 특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지난 25일부터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창립기념행사인 제주산 노지감귤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직매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11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노지감귤 3kg 기준 판매가격은 1만원이다.



“제주임산물 맛보고 체험하세요” 26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린 제3회 제주임산물체험 및 홍보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저렴한 가격에 임산물을 구입·체험하고 있다.

농협 측은 특히 당도 선별 작업을 거쳐 10브릭스(brix) 이상 엄선한 감귤을 판매하고, 신선유지제 사용을 통해 감귤 신선도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사를 통해 60t 가량의 노지감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고성만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한 노지감귤 물량 처리로 최근 급락하고 있는 노지감귤 시세를 지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금타기자 haru@ihalla.com

외국인 제주토지 거래 축구장 98개 규모

제주 올해 3분기만 48개 집중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전국 지역별로는 그래도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외국인이 거래한 제주토지는 축구장 98개 규모다.

27일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9월 한달간 제주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건 수는 55건(제주시 37·서귀포시 18, 1필지 기준)에 면적은 23만7000㎡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2건

(제주시 60·서귀포시 72)에 4만7000㎡에 견줘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면적에서는 5배 이상 크다. 2017년 9월 115건(제주시 78·서귀포시 37), 32만6000㎡에 비해서는 건수나 면적에서 모두 모자랐다.

9월 전국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은 총 1828건, 203만4000㎡에 달한다. 건수에서 제주보다 앞선 곳은 경기(799건), 충남(108건), 서울(375건), 인천(169건), 강원(67건) 5곳 뿐이다. 전체 필지 수로 따지면 제주 토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제주지역의 경우 올 3분기(7~9월) 가운데는 9월 거래 규모가 가장 크다. 7월에는 41건(제주시 24·서귀포시 17)에 3만7000㎡가 거래됐고, 8월에는 38건(제주시 23·서귀포시 15)에 6만7000㎡가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최근 4년간(2016~19) 3분기별 거래 규모는 ▷2016년 268건, 29만2000㎡ ▷2017년 346건, 41만3000㎡ ▷2018년 416건, 21만5000㎡ ▷2019년 134건, 34만1000㎡ 등이다.

올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땅의 크기는 488건, 70만3000㎡로 국제공인축구장(면적 7140㎡)으로 환산하면 1~9월 누계는 98개, 3분기만은 48개에 각각 해당한다. 백금타기자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10월 28일~11월 3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사명	대표	창립일
원남기업(주)	오영수	1990년 10월 30일
(주)서흥전기	부평국	1990년 10월 31일
속명음악학원	장애란	2001년 10월 31일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최상의 기술력 바탕 고객 중심 시공”

▶원남기업(주)=30일 창립 29주년을 맞는 원남기업(주)(대표 오영수·사진)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최상의 기술력이 바탕이 된 고객 중심 시공에 주력, 불량 시공의 제로화를 비롯해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기·정보통신사업 및 소방공사업과 함께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오영수 대표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도내·외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사를 맡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기업이 되겠다”며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제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755-3351.



“건설 시공으로 제주경제 발전 기여”

▶(주)서흥전기=31일 창립 29주년을 맞는 (주)서흥전기(대표 부평국·사진)는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로서 성장을 거듭, ISO(국제표준 품질 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한 고품질 공사 체계를 구축해 기업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한전 제주지역본부가 벌이는 제주도 및 서부지역 저압단가 공사, 철탑공사 등 각종 전기공사를 하자 없이 추진하면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다.

부평국 대표는 “고품질 시공으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앞서가는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며 “건설 시공으로 제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환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99-5177-8.



“다양한 악기 전문 레슨 진행”

▶속명음악학원=31일 창립 18년을 맞는 속명음악학원(원장 장애란·사진)은 피아노부터 우쿨렐레, 기타, 드럼,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까지 다양한 악기의 전문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란 원장은 숙대 음악치료과정과 유리드믹스과정을 수료하고 우쿨렐레 1급·플루트·오카리나 자격증, 예술융합교육지도사 및 피아노 교육전문가 자격증 등을 보유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장애란 원장은 “전국학생 아라공쿠르 1등과 탐라공쿠르, 제주영아 트리트 공쿠르 전체대상을 배출했다”며 “4세부터 100세까지 매일반, 야간반, 토요일반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 748-7766. 김경섭기자



로또복권 <제882회>

당첨번호	18. 34. 39. 43. 44. 45
2 등 보너스숫자	23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영희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복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 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 해안동 생관리아(목장) 맹지 28,842㎡ 6억
- 아리동기차촌 1090㎡ 9.24억
- 아리동기차촌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 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

- 애월수상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 원
- 하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
- 판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9억 원

※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우도하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 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 원

제주그린바이크 TREK 삼천리자전거 일도대리점 WATERLOO, WISCONSIN | SINCE 1976

고급MTB. 접이식자전거, 아동용자전거 등 다양한 디자인의 종집합

경품자전거 환영 / 전기자전거판매

추급 브랜드: TREK, BONTRAGER, 삼천리자전거

● 아동용 ● 여성용, 신사용 ● 산악용 ● 고급자전거, 접는자전거

판매한 자전거는 끝까지 A/S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전지역 배달 서비스

대표 이상석·장영화 ☎ 725-3004, 721-3002 제주시 일도2동 연삼로 521-1 (제주은행 연삼로지점 동쪽 70m)

우성APT, 동광초등학교, 70m, 신제주명항, 최북면사무소, 제주은행 연삼로지점, 주차장, *숙합